

# 息山 李萬敷의 '書畫論' 연구

신 두 환\*

## ■ 차례 ■

- I. 문제의 제기
- II. 서화예술의 형성배경
- III. 예술철학과 서화예술의 미의식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 당대 성리학의 종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식산 이만부의 서화에 대한 미학 담론을 조명한 것이다. 식산의 집안은 대대로 서화예술에 대한 가학이 이어져오고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릴 적부터 서화를 접하게 된 식산은 서화에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서예뿐만 아니라 인물화를 비롯하여 산수화 등의 그림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서화비평에는 성리학적 예술철학과 민족예술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이 들어 있었다. 식산 이만부의 '고전팔분체'의 글씨에는 枯淡의 풍격이 들어 있으며, 그가 남긴 〈무이도〉, 〈오현도〉, 〈상산사호도〉, 〈누항도〉 등의 그림에는 교화와 인륜을 위한 위대한 사상과 미의식이 들어 있다. 그의 서화예술과 서화에 대한 비평에는 다양한 미의식이 들어있으며 조선 선비의 민족적 기질이 함의되어 있다. 그의 서화 작품과 비평에는 성리학의 오묘한 理趣와 고도의 예술성이 포함되어 있다. 식산은 서화에 대한 호사가로서 날카롭고 섬세한 예술 감상과 비평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식산은 18세기 초, 조선 서화예술에 대한 비평의 거장이었다. 그는 藝道一致의 성리학적 서화관과 우리 서화의 자긍심을 주창한 민족서화론을 피력하고 있었다.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오늘날 전하여오는 그의 필적만 보아도 그의 書畫風은 성리학적 예술철학의 풍격이 깃들어 典雅하고, 집안 대대로 서화예술에 대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연안이씨의 귀족적인 기품이 높다.

**주제어**

식산 이만부, 서화, 성리학, 古篆, 藝道一致.

## I. 문제의 제기

조선 서화계의 파천황, 식산 이만부. 그의 일생은 당파와 성리학으로 점철되었다. 그는 남인 사림의 거장으로서 당대 최고의 유학자로 평가를 받았으며, 문학, 교육사상가, 시·서·화로도 이름을 드날리며 일관된 삶을 살았던 은둔의 학자이자 예술가였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재야 사림의 거장이었던 息山 李萬敷(1664~1732)는 자기 시대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그 여가에 연안이씨 집안의 가학으로 이어지는 서화의 예술정신을 계승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로 임란 이후 사회 변화에 동요되어 심각하게 흔들리는 성리학을 수기치인의 입장에서 폭넓게 수용하여, 주체적으로 학문을 정립함으로써 당대 성리학자로서 그 위치를 굳혔다. 그가 지은 『도동편』, 『지행록』 등, 방대한 저술을 통해 그의 학문을 피력함으로써 몇몇 연구자들로부터 조명을 받았고 이런 방향으로 식산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sup>1)</sup> 이러한 학문적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화에 대한 연구는

1) 權泰乙,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 『尙州農專大論文集』 제22집, 1983. 231-240쪽.  
 \_\_\_\_\_,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II)」, 『尙州農專大論文集』 제24집, 1984. 161-170쪽.  
 \_\_\_\_\_, 「息山 李萬敷의 傳研究」, 『嶺南語文學』 11집, 1984.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는 실학사상과 관련지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이 식산을 실학사상의 橋頭堡로 떠올린 반면 식산이 의도한 성리학 본연의 시각으로 그의 작품을

- 
- \_\_\_\_\_. 「息山 李萬敷의 在陳錄研究」, 『한실 이상보 박사 회갑기념논총』, 1987.
- \_\_\_\_\_. 「息山 李萬敷의 文學觀考察」, 『國文學研究』 10집, 1987. 270-271쪽.
- \_\_\_\_\_.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嶺南語文學』 14집, 1987.
- \_\_\_\_\_. 「息山 李萬敷의 書研究」, 『석하 권영철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1988.
- \_\_\_\_\_. 「息山雜著에 나타난 批判精神考」, 『嶺南語文學』 15집, 1988.
- \_\_\_\_\_. 「息山 李萬敷의 사상과 문학」, 『동방한문학』 제13집, 1997. 2-14쪽
- \_\_\_\_\_. 『息山 李萬敷 文學研究』, 문창사, 1999.
- 金南馨, 「朝鮮後期 近畿實學派의 藝術論 研究 - 李萬敷·李瀾·丁若鏞을 中心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8.
- \_\_\_\_\_. 「地行錄」에 나타난 息山 李萬敷의 作家意識」, 『한국한문학연구』 21집, 1998.
- \_\_\_\_\_. 「息山 李萬敷의 紀行詩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12집, 1998.
- 朴贊善, 「息山 李萬敷의 生涯와 思想」,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83.
- 鄭映鎬,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조남호, 「퇴계학과의 남명학 비판 - 曹好益, 李玄逸, 李萬敷를 중심으로 -」, 『南冥學 研究論叢』 第10輯.
- 이선옥, 「息山 李萬敷의 누항도의 서화첩 연구」, 『미술사학연구』 227집, 2000. 5-35쪽.
- 박영달·신영철, 「息山 李萬敷의 식산정사 정원 특성」, 『한국정원학회지』 19집, 2001. 74-86쪽
- 남춘우, 「息山 李萬敷의 시세계」,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신두환, 『남인 사립의 거장 식산 이만부』, 한국국학진흥원, 2007.
- \_\_\_\_\_. 「식산 이만부의 '명'과 그 일상의 미학」, 『한문학논집』 제25집, 근역한문학회, 2007. 157-189쪽.
- \_\_\_\_\_. 「식산 이만부의 <金剛山記>에 나타난 문예미학」, 『한문고전연구』 제17집, 한국 한문고전학회, 2008. 73-102쪽.
- \_\_\_\_\_. 「息山 李萬敷의 教育思想 研究」, 『한문교육연구』 제29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409-443쪽
- \_\_\_\_\_. 「息山 李萬敷의 性理學과 文藝美學」, 『동방한문학』 제35집, 동방한문학회, 2008. 121-150쪽
- 정은진, 「18세기 서화제발(書畫題跋) 연구(2) - 숙종·경종시대: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와 동계(東谿) 조구명(趙龜命)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323-377쪽.
- 김주부, 「息山 李萬敷의 山水紀行文學 研究 - 『地行錄』과 『陋巷錄』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조명하는 일에는 정작 소홀하였다.

그는 글씨에 뛰어 났으며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는 선비였다. 그의 방대한 문집 속에는 서화예술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는 언급들이 여러 편 들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예술사를 위해서도 간과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어 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련의 조선 후기의 문화예술 연구의 양상이 영·정조 이후 새로운 학문적 경향인 실학사상에 압도되어 이와 관련된 작품만 분석하여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시대적 의의’라고 결론을 내리는 연구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자칫 작가의 개성을 획일화 시키는 몰개성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간과하는 연구 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식산의 서화예술에 대한 연구는 그 내재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면 당대 상황에 대한 독특한 예술적 현실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는 성격도 파악해 낼 수 있다.

식산 이만부의 서화 예술세계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 먼저 권태을 선생에 의해 식산의 서화는 주목이 되었고, 김남형은 「朝鮮後期 近畿實學派의 藝術論 研究 - 李萬敷·李瀾·丁若鏞을 中心으로-」<sup>2)</sup>라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식산의 서화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다. 이선옥은 「息山 李萬敷의 누향도의 서화첩 연구」<sup>3)</sup>에서 〈누향도의 화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무이도〉에 대한 언급과 서화 전반에 대해 연구하였다. 신두환은 『남인 사림의 거장

2) 김남형, 「朝鮮後期 近畿實學派의 藝術論 研究 - 李萬敷·李瀾·丁若鏞을 中心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8.

3) 이선옥, 「息山 李萬敷의 누향도의 서화첩 연구」, 『미술사학연구』 227집, 2000. 5-38쪽

신산이만부』<sup>4)</sup>란 저서에서 그의 서화 전반을 소개하였다. 또 정은진은 「18세기 書畫題跋 연구(2) - 숙종·경종시대: 息山 李萬敷와 東谿 趙龜命을 중심으로」<sup>5)</sup>에서 식산 이만부의 제와 받을 일부 조명하였다. 이들 연구의 선편을 달고 최근 차미애는 「近畿南人 書畫家 그룹의 系譜와 藝術活動 - 17C 말, 18C 초 尹斗緒, 李澈, 李萬敷를 중심으로 -」<sup>6)</sup>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그 계보에 대해 논하였다. 이것이 식산의 서화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의 전부이다. 그러나 자료의 소개와 서화의 전승과정 및 예술철학의 범주와 시대적 배경 등은 그 주변에 머물고 있으며 식산을 중심으로 한 그의 서화에 대한 예술철학을 토대로 심화된 미학비평은 아직 연구된 적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때까지 연구된 업적을 바탕으로 그의 서화에 대한 예술철학과 미의식을 검토하여 식산 이만부를 당대 서화 예술의 巨峰으로 그 위상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 II. 서화예술의 형성배경.

息山 李萬敷(1664~1732)는 이조판서를 지내고 관중추부사에 오른 芹谷 李觀微의 손자요, 이조참판과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博泉 李沃의 아들로 현종 5년, 1664년 12월 22일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仲

4) 신두환, 『남인 사람의 거장 식산 이만부』, 한국국학진흥원 2007.

5) 정은진, 「18세기 서화제발(書畫題跋) 연구(2) - 숙종·경종시대: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와 동계(東谿) 조구명(趙龜命)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323-377쪽.

6) 차미애, 「근기남인(近畿南人) 서화가(書畫家) 그룹의 계보(系譜)와 예술(藝術) 활동(活動) - 17C 말, 18C 초 윤두서(尹斗緒), 이서(李 서), 이만부(李萬敷)를 중심으로 -」, 『인문연구』 61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09쪽, 42쪽.

舒, 호는 息山이며, 본관은 延安이다. 그의 가계는 近畿南人의 명문이었으며 지봉 이수광의 외손이기도 하다.

식산이 일곱 살 때에 하루는 집안 어른들이 어린 이만부에게 장래의 뜻을 묻자 선생은 정주의 학문 즉 성리학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였다.<sup>7)</sup> 이것은 식산이 정주의 학에 정통한 큰 학자가 될 것을 예고하는 언급이다.

또 식산은 10세의 어린 나이에 祖父인 慶尙觀察使 이관징을 따라 경상도에 왔다가 河陽鄉校 大成殿의 현판을 썼다고 한다. 이것은 식산이 어릴 때부터 서예에 대해 특별한 재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식산은 주자학에 몰두한 사람이다. 그의 예술작품도 성리학적인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 창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식산의 예술철학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리학이었다. 식산은 서화에 대한 호사가로서 날카롭고 섬세한 서화예술 감상과 비평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성호 이익으로부터 당대 유학의 종장으로 평가 받았던 식산 이만부는 조선 후기 성리학자로서 명성을 날렸을 뿐 아니라 시·서·화에 뛰어났던 예술인이기도 하다.

식산의 집안은 학문과 서화예술의 대문호였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학이 있었고, 서화예술에 대한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다. 그의 집안에는 많은 서화작품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서화예술의 안목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식산은 『書四公簡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산은 존경하는 지역의 네 어른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표구하여 서첩으로 만들었다. 나는 후생으로 황망하여 미수 허목과 남파 홍우원 같은 제공의 문하이면서도

7) 『息山先生文集』「息山集跋」: 顯宗五年甲辰十二月二十二日生公 時已立乙巳之春也 生質粹美 肌膚冰雪 目瑩若明星 既有志趣莊潔 舉止端雅 人已知其非凡器也 一日 有長老進而問志 先生對曰 所願學程朱者也.

어리고 어리석어 알지를 못했으니 옷깃을 여미어 그분들을 경모한다. 성장함에 미쳐 여러 어른들을 따르면서 서로 만난 것이 빈번하였다. 남악 이현일의 博學多識과 우담 정시한의 特立獨行 고산 이유장의 清高絕俗, 충효당 유성룡의 후예인 유의하의 敦篤謹厚 등은 모두 내가 배우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sup>8)</sup>라고 하였다.

식산은 그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서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아버지 박천 이옥과 숙부 들(李淳, 李淑, 李浹)이 미수 허목과 남파 홍우원에게 사숙하는 것을 목도하였고 식산 또한 그의 문하에서 글씨를 익혔다. 이 자료는 식산이 미수 허목과 남파 홍우원에게서 배웠다는 것이 증명되는 자료이다. 식산은 이 스승들의 아름다운 풍모와 서화 및 학문을 배우기를 좋아했다. 또 상주에 이주한 후로는 남악 이현일의 博學多識과 우담 정시한의 特立獨行 고산 이유장의 清高絕俗, 충효당 유성룡의 후예인 柳聖和(유성화와 교유함)의 조부 柳宜河의 敦篤謹厚 등은 모두 내가 배우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식산의 학문적 계보를 단정 짓는 것이다. 식산은 미수 허목과 남파 홍우원을 스승으로 하였고 여기서 거론된 四老들을 흠모의 대상이지 사제관계는 될 수 없었다. 식산은 이 네 노인들의 자제들과도 교류하였으며 이 四老들의 장점을 들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글씨는 곧 그 인격에서 나오며 이것을 식산은 그들의 글씨를 통해 배우려고 하고 있다. 식산은 글씨가 곧 그 사람이라는 품격비평 안목이 있었다. 그가 써준 많은 서화에 대한 서발류에서 이것이 증명된다.

8) 『息山先生文集』, 卷之十八, 題跋, 「書四公簡帖」; 余後生齒莽 猶及先輩如眉叟南坡諸公之門 然童騃無所知識 惟挹其儀容而敬慕之也 及長 又頗從長者後 得不爲其蹠絕 蓋南嶽李公之博學多識 愚潭丁公之特立獨行 孤山李公之清高絕俗 忠孝堂柳公之敦篤謹厚 皆余所欲學而未能者也 平日四公往復書疏頗富 而兒輩藏之不謹 搜諸亂軸 存若干幅 天不愁遺 四公者皆作古人 而余以小生 今亦老矣 踽踽焉無所適 遂令收拾其餘 裝諸一帖以寓昔日遊從之好焉

식산의 일상은 서화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가 쓴 「跋篆畫屏」에는 글자와 그림을 보기위해 그 연회에 참석하고 또 거기서 글씨를 써주곤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사회에서는 글씨와 그림의 병풍이 없이는 어떤 연회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 글씨와 그림의 내용이 그 연회의 분위기를 압도할 때가 많았다. 식산은 글씨와 그림이 들어 있는 병풍이나 서첩 및 화첩을 완상하면서, 서체와 글자를 따지고 그림을 보면서 문자향, 서권기에 잠기고 있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후기의 글을 남기고 있다. 식산의 일상은 서화예술에 대한 미적 추구가 아님이 없었다.

21세(1684) 때에 조상의 유업을 守成하라는 가훈과 함께 祖父로부터 〈傳家敬手帖(盆蜂公遺訓帖)〉을 받았다. 식산은 경수첩을 소중히 다루었다. 그의 조부李觀徵(1618-1695)은 楷書에 일가를 이루었고, 만년에는 金生의 필법을 연구하였다. 식산 이만부는 왕고 근곡 이관징의 서찰을 모두 정리하여 보관 할 수 있도록 수습하였다. 식산은 이렇듯 가전되어오는 서화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수습하면서 서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었을 것 같다. 31세 때에는 숙부 李淑이 죽었다. 그 후 식산은 숙부의 서예에 대한 경지가 남달랐고 세상에 이름을 날렸던 숙부에 대한 사모의 정이 깊었다. 식산은 「敬書叔父別檢公兩絕帖後」에서 “숙부 별검공은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셨다. 일찍이 문학과 서예에 빠져서 노니셨는데 세상에서 양절이라고 일컬어 졌다. 그러나 그것은 여사였다. 그러나 서예에 일가견이 있는 자들은 비평해서 이르기를 “공은 大字, 小字 楷書의 서법은 한석봉의 서체를 깊이 체득했으며 목죽은 石陽公子 石陽君 李震과 나란히 할 만하고 매화는 魚夢龍(1566-1617)을 따를 만 했다. 홀로 한스러운 것은 무릇 집에 소장할 수 없었던 대대로 내려오는 보배였다. 만부에 이르러 옛 것 속에서 찾은 金梅 2폭, 또 우인 尹균으로부터 얻은 소자 6폭, 목죽 2폭을 표구하여 첩을 만들고 서재에 거하면서

펴서 완상하다가 감회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곧 그 뒷면에 後記를 써서 후인들로 하여금 나의 뜻을 알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9)라고 하였다.

식산의 숙부 별검공은 이옥과 함께 미수 허목과 남파 홍우원에게 서법을 전수받았다. 이숙은 서화에 대하여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던 것 같다. 특히 어몽룡의 매화 그리는 법은 미수 허목을 통하여 그의 숙부들인 李滄, 李淑, 李浹에게 전해진 것 같다. 미수 허목은 이관징의 자손들에게 서법을 가르쳤으며 식산의 집과 절친했다. 식산이 40세 전후에 그린 <누항도>는, 갈암 이현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적이 있다.

47세 때에 식산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서예필적들을 모아서 가첩을 만들었다. “우리 선조 분봉공10) 이하로부터 문필이 세상에 전해져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적이 산일되고 혹 집에 소장하지 못한 것과 우리 숙부 별검공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구적에서 널리 고급의 서법을 온축하고 더욱 수습하는데 뜻을 두었으나 모두 얻을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 직계와 방계의 해서와 초서 등의 서화작품은 전하는 것을 남김없이 수습하고 또한 여러 부형들의 필적과 종친들의 잘 쓴 것을 붙이고 나열하여 권축을 만들었다.”11)라고 하고 있다. 식산은 이 시기에 집안의 전적들을 두루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식산의 숙부 東厓 李浹 또한 서화에 일가견이 있었으며 서단에 이름

9) 『息山先生文集』, 卷之十八, 題跋, 「敬書叔父別檢公兩絕帖後」; 叔父別檢公 不幸早世 其游戲翰墨 世稱兩絕 而乃餘事也 識者評曰 公之大小楷法 得石峰韓氏妙處 墨竹混石陽公子畫 梅可追魚氏 獨恨夫家無所藏 以爲世寶者 侄萬敷拔舊所得金梅二幅 又從友人尹君得小字六幅 墨竹二幅 粘裝成帖 齋居披翫 感懷難抑 仍書其後 使後人知余之志云爾.

10) 李澍, 1534년(중종 29)-1584년(선조17), 자 언립(彦霖), 호 분봉(盆峯), 시호 정목(靖穆), 본관 연안(延安), 경성관관, 사간원정언, 가산군수. 조선 중기의 문신. 인조 때의 호성공신(扈聖功臣) 광정(光庭)은 그의 맏아들이다. 조식(曹植)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다.

11) 『息山先生文集』卷之十八, 題跋, 「延安世墨跋」.

이 있었다. 그의 생몰년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고, 본관은 延安. 자는 悅卿, 호는 東厓이며 이조판서 李觀徵의 아들이다. 許穆·洪宇遠에게서 수학하였다. 일찍이 문예를 성취하였으며, 1689년(숙종15) 생원·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고, 특히 생원시에서는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같은 해 유생으로 대사헌 李玄逸의 유임을 청하는 소를 올렸다. 벼슬은 司饗院奉事에 그쳤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1689 己巳) 11월 19일(임자)에 성균관 유생으로 이협이 대사헌 이현일을 만류할 것을 청하는 상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동에는 갈암과 같은 당맥의 교류가 있었다. 이협이 형 이옥의 옥사로 인하여 嶺南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숙종이 '공의 집은 명문인데, 영남으로 내려가면 누구의 집안과 성혼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협은 영남의 토계와 벼들이 지천에 널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은 진성 이씨와 하회 류씨를 말한다. 연안이씨 태자첨사공과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명문집안이었다.

그의 落鄉은 이옥의 옥사 때문이었다. 그 당시 유명천의 상소와 이발이 형 이옥을 신원하는 상소는 당파싸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때 두 집안은 원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옥과 이발 형제는 귀양을 갔다. 이 옥사로 인해 식산의 집안은 낙향하게 된다. 이때에 식산 이만부와 이만유가 동애를 따라 영남으로 이주하여 식산은 상주로 이주하고 동애는 안동에 이주하였다고 한다. 식산은 상주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만 했다.

식산은 서화의 명가에서 태어나 당대 서예에 일가견 있는 사람으로 서첩에 대한 서발을 통해 다양한 비평을 남기고 있다. 그 속에는 〈敬書王考筆帖匣〉 등 선조의 필적과 退溪, 西厓, 眉叟, 聽松, 蘇齋 등의 필적에 대한 평, 王羲之의 필적이라고 알려진 遺教經이 사실은 위작임을 밝힌 〈書遺教經帖〉 등이 있다. 또 〈跋篆畫屏〉, 〈書大東書法後〉 이하로는 동방의 名筆로 알

려진 金生, 黃孤山, 楊蓬萊, 韓石峰 등의 필첩에 대한 書後가 실려 있다.

식산의 서예작품에 대한 전적은 『息山堂篆法』과 『古文』이다. 『息山堂篆法』은 1723(景宗 3)에 제작되었으며, 1帖이다. 息山 李萬敷(1664-1732)의 古篆帖으로 모두 2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첩의 끝에 계묘년(1723)년 6월 초순에 時習齋에서 썼다고 적고 있다. 2편 중 첫 편은 흑색전지에 금색으로 1면에 1자씩 8면을 수록하였고, 두 번째 편은 남색전지에 묵서로 1면에 5자 3행으로 6면에 걸쳐 써어 있다. 식산의 古篆은 아버지와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眉叟 許穆(1595-1682)에게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만부는 바로 이 古篆을 한 세대 뒤에 계승하여 새롭게 창조하였다. 이첩에 실린 전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생동안 순정 古學에 침잠하여 六經을 근본으로 博學의 세계를 추구하여 우리 학문 발달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식산 이만부는 이관징, 이옥에 이어 문장에 능하며, 글에 있어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만년에는 『周易』을 깊이 연구하였다. 글씨 또한 능하였는데 특히 古篆八分體와 鐘鼎體를 잘 썼다고 한다. 그의 일생은 서화를 떠나서는 한 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

### Ⅲ. 예술철학과 서화예술의 미의식

#### 1. 藝道—致의 성리학적 예술관

“무릇 그림이란 교화를 이루고, 인륜을 돕고, 신이한 변화를 궁구하며, 그윽하고 은미함을 측량할 수 있으니, 육적(유교경전의 육경)과 그 공을 같이 한다. 그림이란 것은 사계절과 같이 나란히 움직이니, 천연(자연)에서 표 현되는 것이지 술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夫畫者 成教化 助人倫 窮神變 測幽微 與六籍同功. 四時並運 發於天然 非由述作  
 〈張彥遠, 歷代名畫記 권1. - 書畫之源流 -〉

이 말은 식산 이만부의 서화예술의 비평에도 적용될 수 있고 조선의 서화비평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는 글귀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일련의 화가들은 자연미를 중요하게 여기며 枯淡한 미의식을 최고의 예술 품격으로 생각하였다. 식산의 서화와 그에 대한 비평들은 예술적인 특성을 발하면서 묘하게도 성리적인 이상을 함의하고 있다. 시서화의 예술 속에는 그 시대가 묘하게도 반영되어 있으며 서예로써 세상을 교화하려는 書敎의 정신이 팽배해 있다. 신라와 고려의 예술이 불교적인 색채를 띠었듯이 신유학의 이상을 가지고 건국된 조선조의 예술은 문화의 모든 분야가 새롭게 변화해가는 신유학적 추세에 맞추어 그림·건축·글씨 등 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식산 이만부가 살았던 시대는 성리학이 팽배였으며 새로운 형식의 서화예술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었다.

17세기 초에 우리 화단은 명나라 절강지방 화단의 영향을 받은 남종화가 전래되면서 반청북벌사상에 젖어있던 우리 문인들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다. 그러나 식산은 주자학을 고수하며 유교 예술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정신을 서화비평에 표출해 내고 있었다.

이 당시의 예술은 藝道一治의 성리학적 예술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藝는 도를 담는 그릇이요 (藝者 載道之器). 藝는 도가 실려 있어야 한다(藝以載道)는 입장에 서있다고 판단된다. 詩書畫 일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시의 이론을 가지고 화를 이야기 하면 화론이요, 시를 가지고 서를 이야기하면 서론이요, 서론을 가지고 화를 이야기하면 화론인 것이다. 성리학적 문학관은 서화론으로 이야기 하면 서화관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文以載道는 書以載道, 畫以載道로도 말할 수 있고, '文者 載道之器'란 것은 書畫者 載道之器가 될 수 있고, 문이란 도를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즉

‘文者 貫道之器’는 ‘藝者 貫道之器’로 볼 수 있고, ‘詩書畫者 貫道之器’로도 될 수가 있다. 이 당시는 교조적 예술관이 팽배해 있었으며 서화도 교훈적 정신이 강조되는 교화의 측면이 강했다. 서화도 서화로서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세상을 교화하는데 일조하는 ‘書教’ 정신이 강조되고 있었다. 조선조 예술을 보는 기본 시각에는 이런 정신을 배제하고는 예술을 논할 수가 없다. 오묘하게도 조선의 모든 서화 작품에는 성리학적 氣風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산수화와 사군자화에는 이미 藝道一致의 서화관이 팽배해 있고 서도로써 세상을 교화하려는 서교의 정신이 저변에 깔려있다. 후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성리학적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찌 서화만 그러하겠는가? 성리정신의 미학은 이미 시, 음악, 건축, 조경 등 모든 예술행위에 근간이 되는 예술철학이 되고 있었다.

“〈오현도〉인즉 송나라 오 진현들을 한 폭에 그린 것이며 명나라가 번성할 때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소계 노수신선생이 얻은 것이다. 그림위의 빈곳에 주자가 4현을 찬한 것과 노재 허형이 주자를 찬한 것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것은 청송 성수침 선생이 쓴 것이다. 주렴계 선생을 중앙에 그리고 정명도 선생을 동쪽에 그리고 그다음에 장황거 선생을 그렸고 그 서쪽에 정이천 선생을 그리고 그 밑에 주자를 그렸다. - 중략 - 나는 어렸을 때 군신의 도상을 구하여 본 뒤, 손수 직접 열 분 성현들의 초상화를 모사하여 바라보며 공경하였다. 그러나 솜씨가 부족하여 정밀하지 못하여 도리어 불공에 가까울까 두렵다. 지금 이 서첩을 보니 필법이 정묘하여 신체가 흘러 움직이는 듯하며 의관이 엄정하고 위위가 엄숙하다. 삼가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선유들이 다섯 선생의 기상을 논한 말들을 어렵듯이 법도사이에서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엄숙한 가운데서 친히 뵈고 가르침을 받는 듯하다”<sup>12)</sup>

12) 『식산집(息山集)』권20, 『五賢圖識』; 五賢圖 卽有宋五賢眞 寫于一幅者也 皇明盛時 傳自中華 而盧蘇齋先生得之 其上有空地 書朱子四賢贊及魯齋晦菴贊者 乃聽松先生筆也 濂溪先生中坐 明道先生東 而橫渠先生次之 伊川先生西 而晦菴先生次之 -중략- 余少也 得君臣圖像 手模十聖賢眞 以瞻敬焉 而手拙未精 反恐近於不恭矣 今此幅筆法精妙 神采流動 冠

식산은 인물화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예술가였다. 식산은 인물화를 연마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서 성현 열 분은 유가의 성현이며, <오현도>의 오현은 송대 성리학을 이끈 주렴계, 정이천 형제, 장횡거, 주자 등 송 오현을 일컫는다. 이 <오현도>는 중앙에 주렴계를 그리고 동쪽에 정명도, 장횡거를 그리고 서쪽에는 정이천, 주희를 그렸다고 하였다. 식산은 성리학의 대현들을 보며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 그림은 성리학적 사유 안에서 창출되는 인물화의 모범이다. 식산은 이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경외하고 사모하였다. 식산의 인물화 意境에는 성리학의 예술철학이 바탕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식산의 예도일치의 예술철학은 증명되고 있다.

식산이 상주에 건립한 식산정사의 공간은 식산의 내면세계가 표출된 성리사상의 승화된 공간이었다. 식산정사의 경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누항도 화첩>이 있으며 식산정사의 주변 경관을 노래한 <누항록>이 있다. 식산은 공자의 제자 안희의 단표누항의 교훈을 떠올리며 가난 속에서 서도 세상에 아첨함이 없는 참선비의 길을 가고자 했다. 식산정사의 이미지를 단표누항의 이미지로 전이하였다. 그의 <누항록>과 <누항도>는 식산정사의 멋과 경치를 오롯이 담고 있는 운치 있는 기록들이다. 이 그림의 意境 속에서도 유교경전의 성리학적 철학이 바탕이 되고 있는 예도일치의 사상을 엿 볼 수 있다.

식산은 상산사호를 동경했다. 그는 「상산사호도」를 벽에 걸어 놓고 때때로 감상했던 모양이다. 어떨 때는 그림 속에 빠져 들어가 마치 한자리를 차지하고 같이 있는 환상에 젖을 때도 있었다. 이 그림을 감상하면

---

衣整嚴 儀威肅儼 悚然敬畏 以先儒論五先生氣象之語 揆擬於依係典刑之間 隱然若親炙而承  
 警咳 豈可以少疑爲嫌哉 知縣盧公思聖 卽蘇齋四世孫也 嘗以 此圖 歸不佞曰 此吾先祖所敬  
 守者 子宜奉之書樓 終歸吾之雲仍也 蓋公長孫支壽從余遊 而仍爲甥故也 今支壽不幸短命死  
 又爲出涕於知縣公之托也 於是改爲錦裝 橫以櫝之 并記以藏焉 後學延安李萬敷 謹識

나태하고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고 했다. 요즘 세상에선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상산사호에 대한 동경은 퇴계의 글에도 언급되는 바, 세상을 구제할 만한 노인들이나 찾아갈 만한 스승이 없다는 말로 비약될 수도 있다. 정원보라는 사람이 이 그림에다가 두 구의 발을 지은 것을 두고 경계의 마음을 촉발한다고도 했다. 이시기 영남 사람들의 문집에서 상산사호가 거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은 왜일까? 진시황의 혹정을 피해 은둔한 상산사호의 의연한 風度儀表의 미는 일종의 도덕미와 인격미로서 세인들의 칭찬을 받아오던 것이다. 당대 당파싸움에서 밀려난 영남사람들은 그들을 상산사호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식산은 주자학을 공부하면서 때때로 이 상산사호의 그림을 펼쳐서 감상하며 은둔의 뜻을 돈독히 하며 자기가 목표한 바를 되새긴 것 같다.

식산은 「상산사호도」를 벽에 걸어 두고 고요히 고매한 풍격과 여운을 대하면 마치 한 자리에 끼어들어 있는 것 같아서 나태하고 나약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 지금은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니 한스럽다. 한 번 태어나서 세상을 도우고 다만 붓 끝에 의지한 그림에 머물 뿐이다. 선생이 발을 지은 두어 구의 말은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를 촉발하게 한다. 세 번 거듭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고, 또 그는 “세속에 「상산사호도」는 반드시 바둑 두는 형상을 본떠서 그리는데 나는 지초 캐는 형상을 그리고자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식산이 이 그림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상산사호의 이러한 은둔의 뜻을 그려낸 것이다. 또 상주의 옛 이름이 상산이라 네 명의 이름난 학자들을 일컬어 상산사호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상주에도 상산사호로 일컬어지는 月澗 李璵, 蒼石 李垞, 愚伏 鄭經世 沙西 全滉 등의 학자가 있었다. 식산의 「상산사호도」는 상주와 관련을 배제할 수 없다. 식산은 은근히 당대의 당파싸움을

피해 상산으로 은거한 사실을 진시황의 혹정을 피해 은거한 상산사호 중의 한사람으로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듯하다. 식산은 그림 감상에 있어서도 세상을 교화하는 효용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식산의 書敎정신은 예도일치의 사상에 근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식산은 인물을 그림에 있어서 그 意境에는 그 인품이 안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인물화 뒤에 오는 흠모의 찬상은 그의 여백에 넘친다. 그림 없는 그림의 미학이다. 그가 타고난 천품, 그가 타고난 지역과 집안혈통 등도 인물화에는 들어 있어야 한다. 天地人의 조화로운 이상이 그림으로 유감없이 발휘되어야 한다. 식산은 인물화의 ‘以形寫神’과 ‘取之象外’의 정신을 표출해 내고 있다. 식산의 인물화는 書畫敎의 교화정신이 극치를 이룬다.

식산은 조선성리학의 대부인 주자의 은둔과 학문과 예술의 공간이었던 ‘무이산’에 대해 동경을 마지않았다. 식산은 주자의 〈무이구곡가〉를 생각하며 무이산을 모사하여 〈무이도〉를 그렸다. 날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보태고 더하여 수정하면서 일곡에서 구곡까지 전설들을 총망라하여 『무이지략』을 지었다. 肅宗年間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武夷圖帖〉 1帖은 息山이 그린 〈武夷九曲圖〉와 관련 기록들을 모아서 만든 圖帖이다. 이만부가 당시 전래된 『武夷志』에 실린 그림을 직접 모사하여 그린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이만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늦게 태어나서 주자의 문하에 들지도 못하고, 또 지역이 멀다보니 한번이라도 그곳에 가서 遺風을 담아 올 수도 없었다. 마침내 스스로 〈武夷圖〉 한 본을 모사하고 주자의 精舍記와 雜詠과 權歌와 武夷에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그 아래에 기록하여 때때로 펼쳐보면서 따르지 못한 감회를 말킨다”라고 하였다.<sup>13)</sup>

13) 『식산집(息山集)』권20, 『武夷志略』.

이만부는 주희의 자취가 깃든 무이구곡에 직접 가보지 못한 아쉬움을 그림과 기록을 통해 달래었던 것이다. 이처럼 〈무이구곡도〉는 식산에게 주희의 학자적인 삶을 간접 체험하고 성리학의 본향인 무이의 정서가 반영된 이상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 그림은 원래 두루마리 형식으로 된 것을 첩으로 만든 것이다. 화면 위에는 曲名이 적혀 있고, 대표적인 경물들은 곳곳에 명칭을 적어 넣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九曲의 경물들 가운데 第五曲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다. 이 5곡에는 주희의 발길이 서린 무이정사와 大隱屏 등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화법은 비교적 단조롭고 소략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것은 모사본을 보고 다시 모사하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무이구곡도〉의 전래 당시에는 주희와 관련된 그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산수화에 대한 심미적인 측면 보다 성리학의 발상지로서 학문적인 감화와 교훈을 전해주는 그림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서도 식산은 주자정신을 계승하려는 예도일치의 예술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서화에 심취하였고 이 방면의 타고난 미감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가 벼슬을 단념하고 학자로 살아가려는 이면에는 그의 예술적 삶이 오롯이 남아 있었다. 그는 성리학적 형상사유와 인식의 과정에서 예술적 취향이 발동되어 시서화에 심취했다. 그의 뛰어난 감수성은 벼슬보다는 성리학과 문예미학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그의 감수성은 시, 서, 화, 원림, 등의 예술에 심취하게 했다. 식산의 〈누향도〉는 이런 사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성리학적 시각으로 자연을 관조하는 그의 심미적 태도는 예사롭지가 않았다.

식산의 서화비평에는 유교경전의 말이 묘하게 들어가 있고 성리의 형상이 묘하게 들어 있어서 교화의 정신이 잘 드러난다. 그의 서화나 비평에는 성리학적 프로파간다 예술을 위한 공력이 드러나고 있다. 시, 서,

화, 음악, 건축 조경 등 다방면에서 특출했던 식산은 예술가적인 기질을 타고 났으며 그가 어려서부터 공부한 성리학이 그의 예술사유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에 나타나는 의경에는 유가의 의리사상이 묘하게도 녹아 있다. 식산의 서화와 서회비평에는 성리학적 예술철학이 바탕이 된 '예도일치(藝道一致)'의 서화관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식산의 민족 서화론

식산이 살았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우리나라 서화예술의 경향은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전통에 맞서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식산은 우리 민족에 대한 남다른 의식으로 민족서예의 가치를 인정하고 심미이상과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식산의 서예비평에는 민족문화의 자긍심이 함의되어 있다. 식산은 “우리나라의 문헌으로 신라사에 들어있는 김생의 필체와 고운 최치원의 시는 중국인들도 칭찬하는 바다. 고운의 필체 또한 굳세고 기이하여 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글씨체는 여러 번 변화한 것이 많고 천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또 돌아다니는 가짜가 많아서 그 진면목을 잃은 것이 많다. 그러나 그 대략을 말하면 김생은 역량을 다 갖춘 까닭에 체세가 자연 유동하고 규구가 나와 법도를 이루었으니 거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운의 인격은 옥같이 깨끗하고 금같이 정결하여 천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그 혈기가 다 사라지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으리오. 이는 자신이 완미한 서법을 보배롭게 여겨 이를 감추어 둔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4)</sup>”라고 하였다. 식

14) 『息山先生文集』, 卷之十八, 題跋, 「書金生孤雲帖」; 我東文獻 在新羅 惟金生筆孤雲詩 爲中華所推許 而孤雲則筆亦適奇可貴也 兩家傳刻 累易模本 今千有餘年 其侵假失真多矣 然大抵言之 金生量與力俱 故體勢自然流動 出規矩而成法度 幾乎權者也 孤雲玉潔而金精也 未洗盡輩血者 何能有此 此所以寶翫 書此藏之云爾

산은 우리 서예사의 조종으로 이 두 사람을 주목하였다. 식산은 이 두 사람의 서예를 비교하여 민족주의에 입각한 미학적 비평을 가했다.

중국인에게서도 칭찬을 받을 정도로 우리 서예의 역사에서 신라의 김생에 대한 필체와 고운 최치원의 서체를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서예는 예로부터 독특하였음을 부각시키고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특히 그의 서체에 대한 민족주의적 미학비평은 중국의 서화에 대한 상당한 안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천년이 지난 김생과 고운 최치원의 필체가 식산을 만나 그 기운생동의 굳센 필치가 되살아나고 있다. 당시 서화가들이 중국의 명필을 본받으려고 기승을 부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선인의 명필을 거론하여 조선의 서예를 긍정하는 민족서예의 자긍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식산은 태어나면서 손금과 발바닥에 글월 '文'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서예에 자질을 타고났던 당대 최고의 서예가 미수 허목 선생의 古篆을 독창적인 서체로 보고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평가기도 하였다. 식산은 종정체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문자가 만들어진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하늘이 밝게 비추어 상을 이루고 땅은 방박함이 형을 이루었다. 그 문은 곧 드러나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참여하여 찬술하고 예약형정이 문아님이 없다. 성인 신명도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하였다. 이에 일월, 성신, 雲雷, 풍우, 산천, 초목, 토석, 충조, 어하, 廣博, 섬세, 원근, 고심, 등은 語彙로서 밝아졌다.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고 서계를 만들고 창힐이 조적을 관찰하여 조적서를 만들고 신농씨가 수서를 만들고 황제씨가 운서를 만들고, 전욱이 과두문자를 만들고 무광이 해서와 기자를 만들고 고문 봉서 귀룡의 문 모두가 고문으로 인하여 그 상서로움을 기록하였다. 주매가 분서를 만들고 백씨가 흘기문을 만드니 수서라고 했고 사일이 조서를 만들고 사성자위가 성서를 만들고 공자의 제자가 麟書를 만들었다. 사주가 고문을 변화시켜 십오편을 만드니 주서라고 했다. 진나라가 고문을 붕괴하고 각부를 만들자 이사가

소전을 만들고 상곡사람 왕차중<sup>15)</sup>이 고문을 변화시켜 예서를 만들었는데 부리는 사람이 글씨를 도와준다는 의미로 예서라고 불렀다. 혹은 정막이 노예의 무리에서 나와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서라고 말한다고도 한다. 정막이 또 소전을 꾸며서 상 지방의 대전을 만들고 왕차중이 또 예서를 줄여서 팔분문자를 만들었다.

중정고문은 삼대에 사용되던 것이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신농과 우가 형산의 비석 및 석고문은 후세에 나왔다. 그러나 蒼古는 더욱 알기 어렵다. 대개 문자가 대신 만들어 지는 것은 그 변화가 무궁하다. 진나라 때 예서가 흥기하자 고문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서나 籀書는 謹嚴하기 때문에 쇠하여 버렸고 예서 글자는 간편하기 때문에 성한 것이니 천리가 쇠미해지고 인욕이 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 고문을 지금 세상에 쓸 수 없는 것도 또한 삼천 가지 의례를 세속에서 행하기 어려운 것과 무엇이 다르랴! 진실로 고문의 남은 뜻을 찾으려고 한다면 삼가 그것을 장려하여야 한다.<sup>16)</sup>

식산은 문자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며 글씨체를 가지고 세대를 비평하였다. 이 서체의 발달과정을 모두 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식산의 문자학에 대한 깊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서체의 발달과 시속의 세대는

15) 중국 후한의 장제(章帝, 재위 75-86) 때의 서가. 허베이성 상곡 사람. 그 당시의 예서(隸書)에 파세(波勢)가 적었으므로 파책(波磔)을 넣어 아름다운 8분체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16) 『息山先生文集』, 卷之十一, 雜著, 「古文源流書贈盧生」; 天昭明成象 地磅礪成形 其文乃著 人參贊兩間 禮樂刑政無非文 聖人神明 作文字以紀之 於是日月, 星辰, 雲雷, 風雨, 山川, 草木, 土石, 蟲鳥, 魚蝦, 廣博, 纖細, 遠近, 高深 彙而明矣 伏羲作八卦 造書契 倉頡觀鳥迹 作鳥迹書 神農氏作穗書 黃帝氏作雲書 顓頊氏作科蚪文字 務光作菴書及奇字 古文鳳書龜龍之文 皆因古文記瑞 周媒作墳書 伯氏作笏記文曰爰書 史佚作鳥書 司星子韋作星書 孔氏弟子作麟書 史籀變古文作十五篇 曰籀書 秦壞古文 作刻符 李斯作小篆 上谷王次仲 變古文爲隸書 隸人佐書故云 或言程邈出於徒隸而作之故云 程邈 又籀小篆 作上方大篆 王次仲 又減隸書 作八分文字 鍾鼎古文 三代用之 不知作於何世 神禹衡山碑及石鼓文 後世始出 然蒼古尤難知 蓋文字代作 變化無窮 及秦隸字興 而古文廢 是何也 篆籀之書 謹而嚴故衰 隸字 簡而便故盛 天理微 人欲勝矣 噫 古文之不可用於今 亦何異三千儀文之難行於俗哉 苟欲尋古文遺意 敬以將之

서로 관련이 있었다. 진나라 때 예서가 발달하자 그 삼대의 순박한 글씨체였던 고전서체가 사라졌다. 이것은 세태와 통한다. 예서는 간편하여 편의주의로 발달하였으니 이것은 천리가 쇠미해지고 인욕이 승한 것이라고 하였다. 식산은 “아! 고문을 지금 세상에 쓸 수 없는 것도 또한 삼천 가지 의례를 세속에서 행하기 어려운 것과 무엇이 다르랴!”라고 탄식하고 있다.

식산은 미수선생을 중국 서예의 영향을 받지 않고 古篆의 서체를 회복한 독창적인 우리 서예사의 대가로 부각시키면서 우리 서예가 중국의 아류가 아님을 지적하고 중국 서예의 범주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낸 것을 강조하였다. 미수의 서체에 대한 식산의 비평은 상고주의적 미학 풍격이 주를 이룬다.

창힐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처음 만들고 진에 이르러 예서가 만들어지자 고문이 망했다. 천하에 통용되고 수천년을 지나 미수선생이 동방에서 그것을 회복하였다. 대개 창힐씨에게 근원하여 신농, 황제, 전욱, 대우, 무광, 주매, 백씨에 참조하여 귀, 용, 종, 정의 고에 미쳐서 참고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그 사범은 오직 뜻이 정해지고 팔에 심어졌으니 근엄하고 방사치 아니하여 그런 즉 자체가 방정하고 속태가 없어졌다. 마치 근세에 줄과 자를 끊어서 획을 모사하여 그 고운 것을 취한 것과 같다면 어찌 족히 말하리오<sup>17)</sup>

식산은 「書李斯小篆帖」에서 “이것은 이사의 ‘역산비소전 당나라 본’을 돌에 새긴 것이다. 굳세고 넉넉하고 끝은 것이 서단을 통해 말하기를 획은 쇠와 바위 같고 글자는 날아갈 듯 하며 비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부터 고

17) 『息山先生文集』, 卷之十八, 題跋, 「;敬書眉叟先生古篆卷後;: 文字始於蒼頡鳥跡 至秦隸字作 古文亡 通天下數千載 眉叟先生復之於東方 蓋原於蒼頡氏 參之於神農 黃帝 顓頊, 大禹, 務光, 周媒, 伯氏. 以及龜, 龍, 鐘, 鼎古文. 自成一家. 其寫法惟在定志植腕. 謹嚴不放肆. 則字體自然方正. 無俗態. 如近世引繩尺模畫. 以取媚者. 何足道哉. 息山先生文集卷之十八

전이 없어졌다. 거듭 탄식할 만하다.”<sup>18)</sup>라고 하였다. 식산은 전서에 심취하고 있었으며 이사의 소전 첩을 보며 서화 예술 미의식을 동원하여 비판하고 있다. 식산의 서예에 대한 깊은 안목이 이러했다. 식산은 이사의 그 서체의 공교함은 훌륭하지만 이로부터 그 졸박한 고전의 풍모는 없어졌다라고 하였다. 식산은 중국에서 사라진 그 진한이전의 삼대의 古篆의 풍모를 회복시켜 놓은 서예의 대가로 미수 허목을 대치시킨다. 또 한 번 식산의 상고주의 풍격에 의한 민족서예론의 의취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석봉의 글씨는 중국인들도 소중히 여기는 바이다. 세상에서 중국의 왕희지와 왕헌지 부자에 비견된다고 하니 진실로 늦게나마 한 쪽 모퉁이의 나라에서 태어났다지만 비록 작은 재주라고 할지라도 어찌 이 같은 대가를 얻게 되었는가? 그 서체의 結局과 歛張은 공교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련되었으나 그러나 비평하는 자들은 속되고 덜 다듬어진 것을 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한석봉을 왕희지의 필체와 비교하여 자못 단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한석봉의 글씨에 우리 동국의 풍모와 기상이 들어 있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근래에 조금 붓을 잡을 줄 아는 자들이 극력으로 왕희지 필법을 배우나 끝내는 한석봉의 범위에 귀결되고 만다. 하물며 석봉보다 선배도 의태가 많이 그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어찌 기상과 습속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로 말미암은 즉 석봉의 글씨는 공교할 뿐만은 아니다.’<sup>19)</sup>

걸핏하면 중국의 왕희지를 일컫는 당시의 서예관에 대해 식산은 민족

18) 『息山先生文集』, 卷之十八, 題跋, 「書李斯小篆帖」; 李斯嶧山碑小篆 以唐本刻于石者也 勁而亮直 而通書斷曰 畫如鐵石 字若飛動 不虛矣 然自古鐘亡 重可歎也

19) 『息山先生文集』, 卷之十八, 題跋, 「書韓石峰帖」; 石峰書爲中國人所重 世傳比倫之言 躋于兩王之間 信乎生晚偏邦 雖曰小藝 何以得此於大方家也 但其結局歛張 愈工愈熟 而似不免俗野 故近來主王氏者 頗短之云 然余謂韓氏之於筆 關我東之風氣 何者 近來稍知操筆者 極力學晉 終歸於韓氏範圍 況在其先者意態 多與之相近 豈非氣習之所使然乎 繇是則石峰之筆 非但毫墨之工而已也

서예론을 펴고 있다. 식산은 한석봉의 필법을 논하면서 중국을 의식하여 우리민족을 우위에 놓고자 하였으며 한석봉의 글씨에 우리 동국의 풍모와 기상이 들어있다는 민족예술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식산은 한석봉체의 '결국'과 '수렴'의 서체예술의 기법을 예찬했다. 식산은 한석봉 서체의 의태를 주목하고 이것은 우리 민족서예의 자긍심이라 여기고 있었다. 식산은 한석봉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서예가로 추켜세우면서 한석봉체의 글씨에 묘한 동방의 기상과 우리의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내세우고자 하였다.

그는 또 조선조 중기의 명필인 고산 황기로라는 서예 작가를 주목하여 “고산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붓을 관찰하면 마치 대장이 110근의 쇠를 녹여 의천, 막야 같은 명검을 주조하는 것 같다. 어찌 그리 굳센가? 그러나 흡사 찌꺼기가 굴속에 다소 남아있는 듯하여 조금 가리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예의 입문 한 곳이 편벽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매번 편벽된 기운이 있을까 근심하니 유독 필체만 그러하겠는가? 어찌 지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리오.”<sup>20)</sup> 라고 하였다.

黃耆老(1521-1567)의 본관은 德山. 자는 鮐叟, 호는 孤山 또는 梅鶴. 할아버지는 경주부윤 황필이고, 아버지는 진사 黃沃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진사가 되어 여러 번 벼슬에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학문과 서도에만 정진하여 서예의 대가

20) 『息山先生文集』, 卷之十八, 題跋, 「書黃孤山帖」: 孤山是何人也 觀其筆 如大匠用百十斤鐵 鑄倚天鏃 何其壯乎 然似有杻滓遺在壙裏 有少不捨處 是無他 入處偏也 東人凡事每患有偏氣 不獨筆爲然 豈非地勢使然乎

가 되었으며 특히 초서에 능했다. 식산은 懷素의 방일한 초서를 애호하고 또 회소를 바탕으로 독특한 서풍을 보인 명나라 東海翁 張弼(1425-1487)을 따랐다. 모재 김안국과 같이 명나라에 갔을 때 명나라 선비들이 그의 筆才를 알고 '海東張翁'이라 불렀다 한다. 또한 황기로를 '왕희지 다음으로 첫째(王羲之後一人者也)'라 했으며, 글 한 폭씩 얻기를 원하였다고 한다. 만년에 보친탄 위의 정자 자리에 다시 정자를 지어 梅鶴亭이라 편액하고 매와 학을 기르며 지냈다. 금오산 바위벽에 '金烏洞壑'이라는 글자가 각자되어 있다. 금오산 최정상 군부대 안에 '候望臺'라고 음각되어 있는 글자도 그의 작품이라고 한다. 식산은 이런 황기로를 특별히 평하고 그의 군센 필적을 예찬하였다. 식산은 명필에 대한 감정을 예리하게 판단하여 그 민족예술의 맥을 이어놓고 있었다.

식산도 東海翁 張弼(1425-1487)의 진적을 접하고 “동해옹의 글씨는 즐겨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터득한 것이며 왕희지 왕헌지 부자에 견줄만하다. 그런즉 어찌 방외도류가 아니겠는가?”<sup>21)</sup>라고 평하였다.

식산은 『대동서법』 간행본을 읽고 그 후기 「書大東書法後」를 썼다.

“내 평생 일찍이 서화나 서한에 뜻을 두지 않은 적이 없다. 항상 서찰이나 편지 등을 찾아서 노력했으나 번번이 형편없는 글씨체 때문에 웃음을 당했다. 그러나 옛날 서첩보기를 좋아해서 매양 남들로부터 빌리고 돌려주면서 펼쳐서 완상하여도 싫지가 않았다. 벽치고루에 미쳐서는 다시 터득할 수가 없었다. 원년 여름에 병으로 금릉 섬봉에 누워 있을 때 『주자어록』을 펼치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었다. 우연히 『대동서법』 간행본을 얻어서 보니 신라와 고려로부터 당대의 명공 경대부에 이르기까지 소인목

21) 『息山先生文集』, 卷之十八, 題跋, 「書東海翁眞蹟後」; 東海翁書喜不拘自得 躋之兩王家 則豈非方外道流耶

객, 방외 도인 등 서예로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 실려 있었다. 한가하여 일이 없어 그 의태를 보니 한결같지가 않았다. 서법에는 순수와 막잡의 차이가 있고 재예는 逸滯之分이 있었다. 공예는 천심의 구별이 있었다. 이에 미루어 보건데 글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22)

李志定(1588~1650)은 우리나라 역대 명필가의 글씨를 목가, 탁본으로 법첩을 만들고 책명을 “대동서법”이라 하였다. 신라 김생으로부터 조선 시대 17세기 전까지 모두 51인의 글씨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역대 명가의 필적을 살펴볼 수 있는 서예사 자료로서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대동서법』은 한국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식산은 『대동서법』이 간행되자 그 후기를 쓰면서, 서예작가 별로 그 필법, 필재, 필공의 순수함과 잡박함 벗어남과 벗어나지 못한 점, 깊고 얕음, 등 상세한 고찰도 없이 이것이 조선 서법의 전부인양 외국에 전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하였다. 식산은 대동서법의 작품들을 일별하고 예리하게 비평하였다. 식산은 평생 동안 서화에 뜻을 두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서화에 대한 완상을 계속해 왔다고도 했다. 식산의 서화에 대한 안목은 대동서법의 저자보다도 안목이 높았다. 식산의 서화예술비평 근간에는 성리학적 예술철학과 우리 민족의 예술혼과 자긍심이 함의되어 있다.

22) 『息山先生文集』, 卷之十八, 題跋, 「書大東書法後」; 余平生未嘗留意筆翰 尋常札牘 輒以荒蕪見笑 然好看古帖 每從人借歸展翫不厭 及僻處孤陋 無復可得也 元年夏 病臥蟾峰時 披朱子語錄 字細眼昏 不能劇讀 偶得大東書法刊本 自羅麗及我朝名公卿賢士大夫騷墨人方外道流以筆者 俱載焉 閒暇無事 看其意態不一 法有純駁之異 才有逸滯之分 功有淺深之別 因以推之 非特書爲然也 嗚呼 可不愼哉

## 3. 식산의 조선 서화가 비평 (미수 허목, 공재 윤두서, 지현 홍득구)

『息山先生文集』卷之二十, '評'에는 「眉叟先生古篆評」, 「尹恭齋畫評」, 「洪知縣畫評」 세 편이 들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것은 식산 이만부의 서화 비평의 핵심이다. 미수는 서예 고전(古篆)에 대해 평하고 공재는 그림에 대한 것, 지현은 산수화에 대한 평이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식산의 서화비평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본다.

## 1) 미수선생고전평

식산 이만부는 미수 허목의 글씨 고전에 대해서 발을 쓰면서 고문에 절로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평했다.

세상에서 고문을 모사하는 자자들은 척도를 사용하여 획을 모사하고 농묵으로 보충하고 메운다. 전체의 문자 살을 죽이고 한 터럭의 신이한 문체도 없다. 마치 금성옥진의 홍을 삼십팔체로 모사할 수 있으나 간행하여 전하는 것이 비록 넓지만 또한 그러하다. 미수 노인은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선고의 근엄함을 회복하려고 해도 그 자득 치는 마치 고철에 이끼가 잠식하여 끊어지고 이어지는 것 같고 노묵의 서리 맞은 껍질이 벗겨져서 떨어지는 것 같다. 마치 생기가 있어서 정영을 노출하는 것 같다. 비슷하게 해보려고 해도 털끝만큼의 먹도 미치지 못한다. 먼저 그 뜻을 얻은 연후에 조금 미칠 수 있지만 단지 형체만 모방한 다면 근엄이 변해서 방일이 되고 고담이 변해서 추가 된다. 어찌 도리어 척도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sup>23)</sup>

미수의 고전체는 다른 서화장르의 고전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

23) 『息山先生文集』卷之二十, 評, 「眉叟先生古篆評」; 世之寫古文者 用尺度糝畫 以濃墨補填 全體死肉無一髮神采 如金振興能寫三十八體 刊傳雖廣 亦然矣 眉老自成家 欲復先古之謹嚴 其自得處如古鐵苔蝕斷聯 老木霜皮剝落 猶有生氣 露出晶英 似非毫墨所及 先得其意 然後可幾及 若只做其形體 謹變而放 古變而麤 豈不反爲尺度者所笑耶

었다. 미수는 상고주의 풍격을 지향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원시유학의 순박함을 찾아 회복하고자 하였다. 미수의 古篆은 임·병양난을 거치면서 당과싸움의 근원에서 그 주자 주석의 문제로 부산했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삼대의 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학문의 기초인 글씨 체부터 변혁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미수는 이사가 만들어낸 예서 이전의 고대중국의 순박한 학문정신을 회복하자는 뜻이 굳게 나타난다. 그 글씨체가 독특하고 좋아서 식산은 따르기를 좋아했고 식산 또한 중국고대의 학문에 심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미수의 이러한 古篆을 평하여 “그의 서법은 오직 뜻을 정함에 완곡하면서도 근엄하고 방사치 아니한 즉 글자체가 자연 방정하고 속태가 없다”라고 하여 그의 古篆에 함의된 의경과 정신세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許穆(1595-1682)은 篆書에 독보적 경지를 이루었다. 식산 역시 허목의 고전을 배워 미수 이후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식산의 서예비평은 그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층위가 매우 심오하고 깊었다. 그가 미수노인의 진나라 이전의 고 전서를 그의 부친을 통해 전수받고 ‘고전팔분체’를 쓰면서 느끼는 감수성은 남달랐다. 지금 세상에 고문체를 쓸 수 없는 것은 마치 예기의 삼천 곡례가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식산은 서체를 빌어 조선후기의 시대를 비평하였다. 서화도 시대를 반영하지만 서화비평도 시대를 반영한다는 반영론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글자는 그 형태만 본받지 말고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 중국의 서예가를 비롯하여 동방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 뜻을 잃고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이 땅의 미수 허목은 고전을 추구하고 그 남은 뜻을 깊이 추구하였다. 진나라 이전의 고전과 그 글씨에 남아있는 정신을 얻어냈다고 극찬하였다. 미수의 글씨는 고철에 이끼가 잠식하여 끊어지고 이어지는 것 같고 노목의 서리 맞은 껍질이 벗겨져서 떨어지는

것 같아 마치 생기가 있어서 정영을 노출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것은 곧 상고주의의 蒼古謹嚴의 풍격이었다. 식산은 그의 古篆을 蒼古謹嚴의 상고주의 풍격의 미학으로 평가했다.

글씨가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식산은 미수의 고전체를 시대를 바로잡을 書敎의 정신이 서린 것으로 보고 민족서화의 큰 봉우리로 떠올리고 있다. 식산도 미수와 같이 전서의 대가반열에 들어 있었다. 조선 서예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인물은 식산 이만부 쪽으로 기우는 감이 있다.

## 2) 공재 윤두서의 서화 비평

식산은 38세에 공재 윤두서의 산수화를 비평했다. 이때에 서화비평에 심취했던 것 같다. 윤두서의 부인은 전주이씨 이수광의 증손녀이다. 식산 이만부의 어머니도 전주이씨 이수광의 증손녀이다. 윤두서는 식산이만부의 아버지 이옥과는 동서지간 이었고, 윤두서는 식산의 이모부이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식산은 공재 윤두서의 그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했다.

「尹恭齋畫評」그림은 처음 현원씨에게서 시작되었다. 문장을 지어서 귀천을 드러내었으니, 요임금의 열두 장<sup>24)</sup> 주나라의 아홉 그림<sup>25)</sup>은 마찬가지이다. 무정이 상형의 설을 구한 것이 인물화의 시작이다. 유봉선이 적현 장주를 그린 것이 산수화의 시작이다. 예씨가 매화를 그리고 필평이 소나무를 그리고 하소정이 대나무를 그린 것이 초목을 그린 시초이다. 조수, 곤충, 신

24) 중국 고래의 12종의 상징적인 문양. 『상서(尙書)』 「익직편(益稷篇)」에 기술되어 있고 천자의 의상인 곤룡포에 붙여진다. 해, 달, 별, 용, 산, 팽(華虫), 불, 종이(宗彝, 鬚器, 나라의 제사에 쓰이는 제구), 조(藻, 水草), 분미(粉米), 도끼(斧), 쌍궁(雙弓)의 12개로 제후 이하는 그 신분에 따라 수를 줄여 의상에 장식한다. 진국시대에 의고적(擬古的)으로 생겼다.

25) 주공의 아홉 가지 그림

기하고 괴이한 물체의 형상에 이르기 까지 형산의 구정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런 고로 후대의 예술에 정밀한 것 공헌 했으니 신선한 것이 능히 그것을 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말로써 말하면 석양공자의 대나무, 어씨의 매화 김사포의 소와 말, 이씨의 산수에 있어서 편벽하나마 뛰어난 것이 유독 지극할 뿐이다. 지금 공재의 인물화인즉 곱고 추하고 늙고 젊고 간에 털과 호흡이 정밀하게 흐른다. 산수의 그림인즉 피, 산골짜기, 바위, 여울, 포구, 갯벌, 다리, 문설주, 등 지척에서 천리까지가 완연하다. 매화의 휘고 마른 형상, 소나무의 늙거나 빼어난 형상, 대나무의 성긴 것과 시원한 형상, 금수 초목의 독특한 형상, 귀신 괴물의 형상, 바람, 구름, 안개, 비, 등의 형상 등의 황홀 허무한 변화, 모든 것이 붓끝으로 회룡하지 않음이 없다. 비재의 뛰어난 재주로 그 깊은 것을 터득하고 그 넓은 것을 취한 것이 이와 같을 수가 있는 것인가? 가히 박학다식하고 정밀하다고 이를 수가 있다. 당세에 변화무상함에 도학으로부터 아래로 시가 예술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옛날에 미치지 않으면서 지금 사람으로서 초연히 옛것을 추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재 윤두서의 그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갖추어 논한 것이다.<sup>26)</sup>

식산은 '그림은 처음 현원씨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그 문장을 지어서 귀천을 드러내었으니. 요임금시대나 주나라의 그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였다. 식산의 비평은 상고주의 풍격에 바탕하고 있어 그 근원이 깊다. 식산은 그림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었다. 예술은 감성과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박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식산은 중국의 서화사에 대해서도 관통하고 있었다. 식산은 그림을 논하면서 역사적 체계를

26) 『息山先生文集卷之二十』, 「評」, 「尹恭齋畫評」. 畫始於軒轅氏. 作文章著貴賤. 唐虞之十有二章. 周家之九繪一也. 武丁象形求說. 畫人之始也. 劉奉先畫赤縣滄洲. 畫山水之始也. 倪氏畫梅. 畢宏畫松. 夏少正畫竹. 畫草木之始也. 至於鳥獸昆蟲神怪物形. 衡山之九鼎備矣. 是故. 後之精於藝者. 鮮能兼之. 以我東言之. 石陽公子之於竹. 魚氏之於梅. 金司圃之於牛馬. 李氏之於山水. 偏勝獨至而已. 今恭齋. 畫人則娟醜老少. 毛吹精流. 畫山水. 則巒壑巖湍. 浦激橋閣. 宛然咫尺而千里. 梅之樛瘦. 松之偃挺. 竹之踈爽. 禽獸草木之不齊. 鬼神怪物. 風雲煙雨. 恍惚虛無變化. 無不弄諸毫端. 非才之長得之深取之廣. 能如是乎. 可謂博而又精乎. 今世質質. 自道學下至曲藝. 皆不及古. 以今人而能超然追古者. 獨於恭齋畫見之. 故爲之備論焉.

세우고 있다. 식산시대의 뛰어난 화가들을 모두 말하고 있었다.

탄은은 우리 묵죽화의 거장이었고, 어몽룡은 우리 매화그림의 대가였으며, 김사포의 소와 말 그림은 조선의 새로운 화풍을 개척하였다. 식산은 그들의 시작을 말하고 그 예술의 기원과 발전을 말했다. 식산은 그림이나 글씨를 평할 때 그 인물의 연원과 역사적 체계를 세운다. 그는 공재의 인물화를 평하여 “곱고 추하고 높고 낮고 간에 털과 호흡이 정밀하게 흐른다.”고 하였다. 식산의 그림 보는 눈은 대단한 경지에 있었으며 식산의 눈에 온전한 그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비평의 안목이 고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산수의 그림을 평하여 “피, 산골짜기, 바위, 여울, 포구, 갯벌, 다리, 문설주, 등 지척에서 천리까지가 완연하다.”고 하였다. 식산의 산수화 보는 법은 치밀하고 정치한데 까지 이르고 있다. 그의 비평의 상세함은 그림의 한 부분도 놓침이 없었다. 공재의 다른 그림들을 평하여 “매화의 휘고 마른 형상, 소나무의 늙거나 빼어난 형상, 대나무의 성긴 것과 시원한 형상, 금수 초목의 독특한 형상, 귀신 괴물의 형상, 바람, 구름, 안개, 비, 등의 형상 등의 황홀 허무한 변화, 등 모든 것이 붓끝으로 희롱하지 않음이 없다.”고 평하였다. 식산은 공재의 그림을 “가히 박학다식하고 정밀하다고 이를 수가 있다.”고 평했다. 공재의 그림은 전대의 그림을 섭렵한 박식에 근거한다고 평하였다. 식산은 공재의 그림을 상고의의 정신으로 평하여 “당세에 변화무상함에 도학으로부터 아래로 시가 예술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옛날에 미치지 않으면서 지금 사람으로서 초연히 옛것을 추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재 윤두서의 그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식산은 공재 윤두서의 그림을 모눈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그림을 귀신같이 비평해 냈다.

식산은 공재 윤두서의 그림의 세계를 극찬하고 있다. 식산은 동양미술사를 꿰고 있을 정도로 미술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비평 역

시 박학해야 박학을 평할 수 있다. 그림은 아는 만큼 본다.

尹斗緒(1668~1715년)의 본관은 海南. 자는 孝彦, 호는 恭齋·鐘崖. 謙齋 鄭歎, 玄齋 沈師正과 함께 조선 후기의 '三齋'로 불린다. 尹善道の 증손이다. 그의 「採艾圖」·「짚신삼기」 등은 사대부에 의해 그려진 서민 풍속화이다. 나물 캐는 여인들, 짚신을 삼는 노인이 소재가 되었는데, 이는 사대부로서 서민들의 삶에 대해 애정 어린 눈길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딸의 그림에서 이미 꾸준한 관찰에 의한 사실적 묘사의 경지를 확보하였다. 그의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尹跋(1708-1740)의 「挾籠採春」, 金斗樑(1696-1763년)의 「牧童午睡」·「四季風俗圖」, 趙榮祐(1686-1761)의 「새참」·「바느질」·「採乳」·「작두질」 등으로 계승되다가 마침내 김홍도에 이르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고조의 경지에 달했다. (민족문화 대백과 참조).

훌륭한 예술비평은 예술작품의 외형에 드러난 표현 기법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품 속에 고도의 정신적 경지와 내적인 생명력이 용해되어 있는 점을 감상해 내지 못하면 강렬한 인상과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서예 예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쓰이는 것만으로 서예작품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작품 속에 작가의 높은 정신세계가 녹아있을 때 비로소 그 작품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한 후에야 비평이 가능하다. 공제 윤두서의 서예작품에 나타난 고도의 서화예술세계를 이만부는 특유의 박식과 감수성을 가지고 '미학비평'으로 평해 냈다.

### 3) 홍득구의 산수화 평

식산은 당대의 산수화를 평하면서 홍득구의 산수화를 주목하였다. 홍 득구의 그림을 평하여 "근세의 산수의 그림은 탄은<sup>27)</sup>을 우두머리로 꼽는다. 지

27) 이정(李霆 : 1541-1622?), 자 중섭(仲燮). 호 탄은(灘隱). 세종의 현손(玄孫)으로 석양정(石陽正)에 봉해졌다가 뒤에 석양군(石陽君)에 진봉(進封)되었다. 시·

금은 지현 홍득구가 최고로 점쳐지고 있다. 비록 후생이지만 필법이 기이하고 훌륭하여 당시에 뛰어난 점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술을 논한 자들이 보는 것이 아직 뛰어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나 그 산의 그림에는 반드시 기이한 봉우리와 기암괴석이 있고, 물의 그림은 반드시 소용돌이치는 물과 매달린 폭포가 있다. 정자, 누각, 바람, 안개, 물상 등의 형상에는 반드시 뛰어난 기예와 독특한 예술성이 있다. 이씨 같은 즉 그림은 항상 산과 계곡을 찾아가 임리가 아님이 없다. 가히 그 터득한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인에 비유하면 이즉 향산 백거이요 홍은 고적이나 맹교의 무리에 속한다. 반드시 지식과 재능에 변별이 있는 것이다.”<sup>28)</sup>라고 하였다. 그의 산수화 비평에는 화가를 알아보는 뛰어난 예술적 안목이 들어 있었다.

식산은 화가와 그림을 알아보는 감식안을 가졌다. 식산은 서화를 시에 비유하고 시인에 비유하여 서화가를 비평하고 있다. 식산은 조선의 산수화를 논하면서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논의에 대해 이설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산수화의 거벽으로 灘隱 李震(1541-1622)을 꼽고 있었다. 식산은 당대 비평가들을 뛰어넘지 못한 데가 있다고 하면서 홍득구를 탄은의 윗자리로 밀어 올렸다. 탄은과 대비된 홍득구는 선비화가로 알려졌다. 洪得龜의 본관은 南陽. 자는 子徵. 호는 蒼谷. 벼슬은 牧使를 지냈다. 인물화와 영모화도 잘 그렸으나 특히 산수화에 뛰어났으며, 독창적인 화법으로 片幅小景을 즐겨 그렸다. 작품으로 〈어초문답도〉, 〈樹下漁翁圖〉가

---

서·화에 뛰어났으며 묵죽(墨竹)으로 이름을 떨쳤다. 작품으로 《풍죽도(風竹圖)》 《죽도(竹圖)》 《난도(蘭圖)》 등이 있다.

28) 『息山先生文集』卷之二十, 評, 「洪知縣畫評; 近世畫山水 以灘隱爲首 今洪知縣得龜 雖後生而筆法奇逸 時有過處 以世而論藝者 見未透故也 然其畫山必奇峰怪石 畫水必激湍懸瀑 亭閣風煙物態 必絕奇特勝 若李氏則畫尋常山谿 無不淋漓 可知其得處不同 譬之詩家 李則香山 而洪爲高, 孟之倫 必有知而能辨之者也

전한다. 중국의 복색과 중국식 화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sup>29)</sup> 그러나 어초문답의 즐박미는 조선 선비문화의 미의식을 담고 있었다. 홍득구란 인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가 없다. 이 홍득구에 대한 산수화 평을 쓴 것은 아마도 식산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식산은 산수화에도 일가견이 있었으며 특히 그는 타고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다. “식산은 1701년 가을에 서울 종루에 있는 윤두서의 집을 방문했는데 윤두서는 산수화 한 폭을 내밀며 평을 부탁한다. 이에 이만부는 “그 기세는 웅장하고 그 필치는 원대하며 뜻은 탁 트여서 고아하고자 하고 힘써 형용하려고 애썼으니 직접 유람하고 두루보아 그 정취를 깊이 터득한 자가 아니면 아마도 이 경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붓은 먹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먹은 바탕과 조화되지 않으니 솜씨는 마음을 따를 수가 없는 점이 있으니 평소에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평하였다. 평이 끝나자 윤두서는 이 그림이 성호의 형 옥동 이서가 금강산을 유람한 뒤에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밝혔다. 식산의 평이 맞아 들어간 셈이다. 식산은 이렇듯 서화에 대한 안목이 높았다. 식산은 왕희지의 서법을 전범으로 하면서도 서법의 원리를 주역에 두고 운필의 원리를 역리로 풀어나간 성호 이익의 형 옥동 이서와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 식산은 홍득구의 산수화를 극찬한 바탕에는 산수화를 보는 안목이 이처럼 높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산의 「금강산기」는 명문이다. 그러나 그의 기행은 글씨와 그림과 관련성이 있다. 그 중에 “이곳에서 조금 더 북으로 가니 바위에 봉래 양사언이 큰 글자로 ‘蓬萊楓嶽元化洞天’이란 여덟 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필치가 몹시 怪偉하였다”고 한 부분이 있다. 식산이 이 글씨에 평한 ‘怪偉’라는 작품은

29)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어떤 의미의 비평일까? 그것은 아마도 정상적이고 평범한 글씨체가 아닌 것으로 크고 광대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 같다. 식산은 또 “나의 족중조이신 대사간공과 부윤공 등 두 분과 나의 선자(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그 동편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식산은 양봉래의 서첩에 글을 남겼다. 나는 고문체로 『萬瀑洞』이라 써서 함께 새겨 놓았다.” 라고 하고 있다. 식산은 양사언의 글씨에 대해 평한 적이 있다. “봉래 양사언은 세상에 이름이 난 것이 늦었다. 그러나 터득한 바가 매우 높고 왕희지 체를 주로 하여 거기에 미쳐 다다름이 함께할 만 했다. 조용하고 자적하여 淸에 가깝고 中正한 자이다.”<sup>30)</sup>라고 하였다. 식산은 양사언의 글씨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식산은 여행 중에도 서화의 답사와 혹은 산수화의 구도를 잡아본다는가 하는 행위가 종종 드러난다. 식산의 〈금강산기〉는 금강산 전도를 그리기 위한 설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강산의 전경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식산은 『지행록』에서 경북 봉화 유곡에 있는 충정공 권발의 집을 답사했다. “충정공 권발의 고향을 탐방하여 청암정에 올랐는데 이것은 충정공 권발이 직접 엮은 것이었다. 문 위에 미수노인이 쓴 ‘청암수석’ 4자가 전각되어 있었다. 또 동해옹 張弼의 진적을 보았는데 마치 용과 뱀을 움켜잡은 것과 같았다.”<sup>31)</sup>라고 하고 있다. 식산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張弼의 진적을 보고 그 감동을 적었다. 이렇듯 식산은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명필의 흔적이 있는 곳을 답사하고 있었다. 그의 서화에 대한 관심은 여행 중에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30) 『息山先生文集』, 卷之十八, 題跋, 「書楊蓬萊帖」; 蓬萊論其世 晚矣 然所得甚高 主王氏而亦不規規於步趨 從容自適 而無所累 庶幾乎淸而中倫者也乎

31) 『息山先生別集』, 卷之四 「地行錄」, 十一 少遊記 ; 訪權忠定舊里 上靑巖亭 忠定公所構也 楯間刻眉老古文靑巖水石四字 又觀東海翁眞蹟 如龍蛇攫拏

식산은 퇴계의 글씨에 대해서도 상당히 흠모하고 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곧 그 사람의 글씨에 드러난다, 퇴계의 글씨를 보고 그 학문의 태도를 상상하고 감발함이 있었다. 식산은 퇴계가 손수 쓴 글씨를 수집하고 그 글씨에 대한 평을 하였다. 식산은 조선의 뛰어난 서화에 대해 두루 제발을 남기고 있으며 조선의 서화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으로 식산의 서화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그의 서화론을 살폈다. 식산은 서화를 통해서 고인들과 소통하며 인품을 논하고 학문을 본받고 예술을 따진다. 식산은 조선을 대표하는 서화비평가로서 그 안목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 IV. 결 론

이상으로 식산 이만부의 서화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식산은 성리학과 경학에도 일가를 이루었지만 서화에 대해서도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대대로 조선 서예의 맥을 잇는 연안이씨의 가문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서예를 익혀 왔으며 성장해서 죽음에 임할 때까지 서화의 범주를 떠나지 못하였다.

그는 미수 허목과 남파 홍우원에게 사승을 받았으며 아버지인 박천 이옥과 숙부인 이숙, 동애 이협 등에게 서화의 영향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성리학을 가학으로 잇고 서법을 동시에 익힌 식산은 성리학과 서법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서화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고 서화 작품을 비평하기도 했다.

그는 집안에 소장된 서예작품을 정리하고 표구하여 첩으로 만들어 소장하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 서첩에 후기를 쓰면서 서화에 대한 비평의 안목을 키워왔다. 식산의 조선 서화에 대한 평은 조선 서화사

의 정통성을 자기가 계승하고 있는 듯 자신감이 넘친다. 식산은 예도일치의 성리학적 서화관을 견지하고 있었고 우리 서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식산 이만부의 '고전체'의 글씨에는 枯淡의 풍격이 들어 있으며, 그가 남긴 〈무이도〉, 〈오현도〉, 〈상산사호도〉, 〈누항도〉 등의 그림에는 교화와 인륜을 위한 위대한 사상과 미의식이 들어 있다. 그의 서화 예술과 서화에 대한 비평에는 다양한 미의식이 들어있으며 조선 선비의 민족적 기질이 함의되어 있다. 그의 서화 작품과 비평에는 성리학의 요묘한 이취와 고도의 예술성이 포함되어 있다. 식산은 서화에 대한 호사가로서 날카롭고 섬세한 예술 감상과 비평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식산은 18세기 초, 조선 서화예술에 대한 비평의 거장이었다.

오늘날 전하여오는 그의 필적만 보아도 그의 書畫風은 성리학적 예술 철학의 풍격이 깃들여 典雅하고, 집안 대대로 서화예술에 대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연안이씨의 귀족적인 기품이 높다.

식산은 왜 미수 허목의 古篆 글씨를 그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 집안에 서법을 전수했던 스승이어서 그럴까? 아니면 청남으로 당파가 같아서 일까? 아마도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식산의 고전체는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려는 시대정신이 서체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성리학 시대의 그 근원을 넘어 중국 고대의 그 순박함을 회복하고 당파로 어지러워진 조선사회의 서단을 그 옛날의 순수한 예술세계로 돌려놓으려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수 허목은 글자를 거슬러 올라가 요순시대에 이르러 고자 하였다. 그리고는 그 순박한 정신을 서체에 담고자 하였다. 식산은 미수의 서체에 함의된 이 書敎의 정신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 미수가 창안하고 개발해낸 독특한 古篆은 중국에도 없는 순수한 우리 민족의 서체이다. 식산도 끊임없이 이 정신을 계승하여 고전을 쓰고 있었다.

조선의 서예사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조선 서체의 기풍과 문

자향, 서권기를 올바로 이어가려는 식산의 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식산은 공재의 그림과 홍득구의 그림들을 거론하면서 식산시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서화예술의 지평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가하고 있다. 식산의 서화론을 전개하면서 그 중심을 관통하는 식산의 견지는 조선 서화사의 정통성을 자기가 계승하고 있다는 자신감이다. 식산은 평생동안 서화를 취미삼아 생활했다. 그의 서화의 의경에는 성리학을 기초로 상상되는 예도일치의 성리학적 예술관이 깃들어 있으며 독창적인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민족 서화에 대한 자긍심이 들어 있었다.

식산은 왜 그토록 조선에서 생산되는 걸출한 작가들의 서화를 관찰하고 비평하려 하였을까? 식산은 조상들의 서화들을 수집하여 다듬고 표구하여 소장하려 했을까? 식산은 왜 조선의 서화에 대한 함부로 된 비평을 경계하고 조선의 주체성을 가진 민족서예론을 견지하고 있었을까? 식산은 조선 서화의 정통성을 지키는 과수꾼이자 종장이기를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息山集』, 한국문집총간 178, 179. 민족문화추진회.  
 權泰乙, 『息山 李萬敷 文學研究』, 문장사, 1999.  
 신두환, 『남인 사림의 거장 식산 이만부』, 한국국학진흥원 2007.  
 權泰乙,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 『尙州農專大論文集』 제22집, 1983. 231-240쪽.  
 \_\_\_\_\_, 「息山 李萬敷의 記研究(Ⅱ)」, 『尙州農專大論文集』 제24집, 1984. 165-175쪽.  
 \_\_\_\_\_, 「息山 李萬敷의 傳研究」, 『嶺南語文學』 11집, 1984. 69-72쪽.  
 \_\_\_\_\_, 「息山 李萬敷의 在陳錄研究」, 『한실 이상보 박사 회갑기념논총』, 1987.  
 \_\_\_\_\_, 「息山 李萬敷의 文學觀察」, 『國文學研究』 10집, 1987. 70-71쪽.  
 \_\_\_\_\_,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嶺南語文學』 14집, 1987. 111-130쪽.

- \_\_\_\_\_, 「息山 李萬敷의 書研究」, 『석하 권영철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1988.
- \_\_\_\_\_, 「息山雜著에 나타난 批判精神考」, 『嶺南語文學』 15집, 1988. 143-167쪽.
- \_\_\_\_\_, 「息山 李萬敷의 文學研究」,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_\_\_\_\_, 「息山 李萬敷의 사상과 문학」, 『동방한문학』 제13집, 1997. 1-14쪽.
- 金南馨, 「朝鮮後期 近畿實學派의 藝術論 研究 - 李萬敷·李漢·丁若鏞을 中心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8.
- \_\_\_\_\_, 『地行錄』에 나타난 息山 李萬敷의 作家意識」, 『한국한문학연구』 21집, 1998. 273-297쪽.
- \_\_\_\_\_, 「息山 李萬敷의 紀行詩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12집, 1998. 313-332쪽.
- 朴贊善, 「息山 李萬敷의 生涯와 思想」,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883.
- 鄭暎鎬, 「息山 李萬敷의 地行錄研究」,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조남호, 「퇴계학과의 남명학 비판 - 曹好益, 李玄逸, 李萬敷를 중심으로 -」, 『南冥學研究論叢』 第10輯,
- 이선옥, 「息山 李萬敷의 누향도의 서화첩 연구」, 『미술사학연구』 227집, 2000. 5-38쪽.
- 박영달·신영철, 「息山 李萬敷의 식산정사 정원 특성」, 『한국정원학회지』 19집, 2001.
- 남춘우, 「息山 李萬敷의 시세계」,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신두환, 「식산 이만부의 '명'과 그 일상의 미학」, 『한문학논집』 제25집, 근역한문학회, 2007, 157-189쪽.
- \_\_\_\_\_, 「식산 이만부의 〈金剛山記〉에 나타난 문예미학」, 『한문고전연구』 제1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73-102쪽.
- \_\_\_\_\_, 「息山 李萬敷의 敎育思想 研究」, 『한문교육연구』 제29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409-443쪽.
- \_\_\_\_\_, 「息山 李萬敷의 性理學과 文藝美學」, 『동방한문학』 제35집, 동방한문학회, 2008. 121-150쪽.
- 정은진, 「18세기 서화제발(書畫題跋) 연구(2) - 숙종·경종시대: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와 동계(東谿) 조구명(趙龜命)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323-377쪽.
- 김주부, 「息山 李萬敷의 山水紀行文學 研究 - 『地行錄』과 『陋巷錄』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Abstract

## A Study of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s Discourse on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1664- 1732)'s discourse on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 style of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include naturalism, expressionism, advocate nationalism. the consonance with an art and the Sung Confucianism(藝道一致) of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His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re in consonance with the Sung Confucianism.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1664-1732), was a great scholar of Sung Confucianism who got over suffering from party dispute The Choseon(朝鮮) Dynasty period. He was left outstanding achievements in academic aspect as well as political and educational aspect. It was human nature and natural laws

How to enjoyment art and culture of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confucian scholars in the Choseon Dynasty period. This term derives from ancient chinese a philosophy.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1664-1732)'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is accomplished on the basic of Sung Confucianism and the aesthetics of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In his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in the aesthetics of the basic of Sung Confucianism. In his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nd poetic criticism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1664-1732) valued the dignity of JeonAh(典雅), be concerned in the Moral philosophy and an Aesthetics. A discussion on the Sung Confucianism(性理學) and the aesthetics of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for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1664-1732) in the Choseon(朝鮮) Dynasty period.

**Key Word**

Sik-san(息山) Lee, Man-bu(李萬敷), Th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nationalism, An art and the Sung Confucianism(藝道一致), Confucian scholars in The Choseon, the dignity of JeonAh(典雅)

- 논문투고일 : 2011.12.14 심사완료일 : 2012.2.3 게재결정일 : 2012.2.10